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수빅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숲입니다. 5층 건물이고 중간 복도가 강의실이고 앞뒤복도는 기숙사 방 복도입니다. 밖에서는 조용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부는 활기칩니다. 카페테리아도 적당했고 수영장도 있어서 좋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가자마자 레벨테스트를 본다. 그 결과로 분반이 되어진다. 시간표에 적힌 숫자가 자기 등수이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다시 파이널테스트와 토익스피킹시험을 본다.</p> <p>월~금 중에 수요일은 오후에 액티비티 수업이 있어서 선생님, 학생들과 더 친해지고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액티비티나 게임, 영화를 본다. (영화 봤을 때 자막없이 봐서 뭘 소리인지 1도 이해 안 갔지만 쌤들이 웃어서 그냥 따라 웃었다.) 그리고 금요일은 **데이라 해서 양말데이, 헤어데이, 모자데이 이렇게 해서 개성있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입거나 착용해서 즐거운 시간을 남겼다. 수업 방식은 1:1과 그룹수업으로 나뉘었는데 1:1 4번 그룹 3번으로 하루 수업을 채운다. 그룹수업은 토의/토론수업이랑 토익스피킹 수업, 멀티미디어 수업이고 1:1은 단어, 숙어, 이슈, 표현수업 이렇게 이루어진다. 토의/토론 수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수업은 아니었다. 내 생각 말하고 간단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멀티미디어는 광고1개, 뮤직비디오 1개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한다. 쌤들마다 수업방식이나 발음이 다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과제는 거의 내주시지 않는 편이다. 나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단어 위주로 복습했다. 새로 안 단어는 따로 핸드폰이나 전자사전에 저장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li> </ul> <p>처음 도착하자마자 수빅 시내 투어를 한다. 환전하고 지프니, 트라이시클 타면서 시청도 돌아보고 한 달동안 돌아다닐 장소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수빅에 도착해서 아침에 레벨테스트하고 점심 이후에 수빅 시내 투어를 해서 피곤했습니다.</p> <p>요트타고 바다에 나가서 다이빙하고 수영을 합니다. 구멍조끼 당연히 나눠주고 요트 위에서 재밌게 시간 보내면 됩니다.</p> <p>트리탑 어드벤처를 옵션으로 했습니다. 트리드랩, 슈퍼맨라이드, 캐노피라이드 등 있어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패키지1, 슈퍼맨라이드랑 캐노피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 500페소였지만 환경보호금 20페소, 총 520페소 냈습니다.</p> <p>바비큐파티는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룹을 지어 바비큐파티에 필요한 것들을 사와서 먹었습니다.</p> <p>수빅에서 3시간 정도걸려 마닐라에서 투어를 했습니다. 학생 5명과 티처 1명이랑 같이 사진 찍고 다니면서 마닐라와 필리핀에 대해 공부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최종 목적지인 몰오브아시아까지 오면 됩니다. 걷는게 많아서 솔직히 지쳤습니다. 몰오브아시아에서 점심먹고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쇼핑도 하고 옆에 있는 놀이공원가서 놀이기구도 탈 수 있습니다. 까마얀비치 입장료 500페소?내고 들어갑니다. 원래 사파리vs.수족관이었는데 새해 첫날이어서 사파리가 일찍 닫는다해서 수족관을 갈려했으나 선발로 출발한 아이들이 수족관 볼 게 없다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까마얀 비치를 갔습니다. 거기서 스킨스쿠버, 카약, 수영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무료지만 다른 액티비티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p> <p>마지막 액티비티는 안바야코브 리조트에서 노는 것이었다. 인피니티풀이 있어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바닷가로 나가서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1000페소씩 걸어서 점심이랑 음료수 등을 해결했습니다. 여기는 회원제라서 안에 들어가면 다 카드 결제여서 팀 리더의 카드가 필요</p>

	<p>합니다.</p> <p>밖에서 오래 활동한다 싶으면은 물은 꼭 챙겨 가지고 썬크림도 잊지 말고 발라주세요. 물에 들어가는 활동이 있고 학교 안에 수영장도 있어서 수영 자주 하니까 수영복은 챙겨서 오세요. 수영 못 하셔도 와서 배워도 되고 그냥 놀아도 되니까 수영복 꼭 챙겨서 오세요.</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겨울에 가면, 건기라서 많이 덥지 않고 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활동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짧은 차림으로 땅바닥에 아무데나 앉으면 벌레 물립니다. 실내는 에어컨 빵빵해서 약간 추울 수 있으니 긴 바지나 긴 팔 여분 챙겨주세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밤에 혼자만 안 돌아다니면 안전합니다. 지프나 택시를 타고 돌아올 때 반드시 그룹으로 뭉쳐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로등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습니다. 되도록 골목말고 큰 길로 다니세요.</p>
숙소	<p>학교기숙사( ● )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는 3인1실이었고 침대3개, 책걸상 3개, 옷장3개, 세면대, 냉장고, 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치해줘서 와이파이 사용했습니다. 점호도 다음 날 수업 있으면 10시이고 없으면은 12시입니다. 때에 따라, 새벽 1시에 점호할 수 있으나 그건 학생리더와 매니저님이랑 상의해야 가능합니다. 점호 후 숙소 밖에 못나가나 그 층 안에서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외출할 때, 학생증 내고 가야합니다. 월, 수, 금 빨래하는 날이랑 방청소 하는 날입니다. 빨래는 빨래바구니만 아침에 갖다주면 되고 방청소는 수업 중에 해줍니다. 방 문만 잘 닫으면 벌레 안 들어옵니다. 제대로 안 닫으면 벌이랑 도마뱀, 개미 등 들어와요.</p>
식사	<p>학교식당(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다 학교식당 이용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한식을 잘 하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김치도 나오고 과일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하루는 토스트, 하루는 소시지와 계란으로 나옵니다. 때에 따라 저녁은 나가서 먹었습니다. 대부분 입맛에 맞았지만</p>

	<p>좀 짠 편이라 짜게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주문 시 소금을 빼거나 조금만 넣어달라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나가서 먹을 때에는 식당에서 주는 물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물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사먹거나 가져와서 마시기를 추천합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주로 지프니랑 택시를 탔습니다. 지프니(13페소)는 2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끝나고 지프니 타고 나갈려면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탈 수 있습니다. 5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퇴근시간이라 지프니가 꽉 차서 다음 지프니 기다려야 합니다. 택시는 정류장에서 숙소까지 오는데 120~150페소 들었습니다. 택시를 콜하면 콜비 따로 받습니다. 택시 타기 전에 목적지를 말하고 얼마냐고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덤택이 씩습니다.</p> <p>교통수단 이용할 때는 최소 2명이상 같이 타야 안전합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319,680	300달러
필리핀 출국비용	12,690	600페소
개인 비용	252,750	식사비, 교통비, 기념품 구입, 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 액티비티 비용
합계	1,224,120	

####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p> <p>물같이 약이랑 개인 상비약 챙겨가세요. 버물리나 모기퇴치제 있으면 좋아요. 선글라스나 자외선차단제 챙기시고 수영복 챙기세요. 긴 옷 여벌, 샌들이나 쪼리 챙기세요. 양말은 거의 안 신어요. 양말 2켤레 정도 챙기세요. 샴푸나 바디워시는 거기서 사셔도 됩니다. 드라이기 가져가세요.</p>
---

한국으로 귀국 시, 600페소 필요하니까 따로 빼두셨다가 학생리더가 돈을 걷을 때 내주세요.

환전할 때 개인 씬씀이 보고 환전했으면 좋습니다. 저처럼 씬씀이가 적은 사람이 많이 환전하면 돈이 남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페소로 환전할 때, 작은 돈 단위로 환전해주세요. 큰 단위면, 거스름돈 받는게 오래걸리고 불편합니다.

자기 몸 상태를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떠나서 아프면 서러워요. 아프면 사무실에 가서 얘기해주고 방에 가서 쉬세요.

노트북은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중간에 수강 신청기간이 켜 있었지만 가족이나 친구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되도록 짐은 가볍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때, 지인분들 선물 사느라 수화물무게 초과하는게 과반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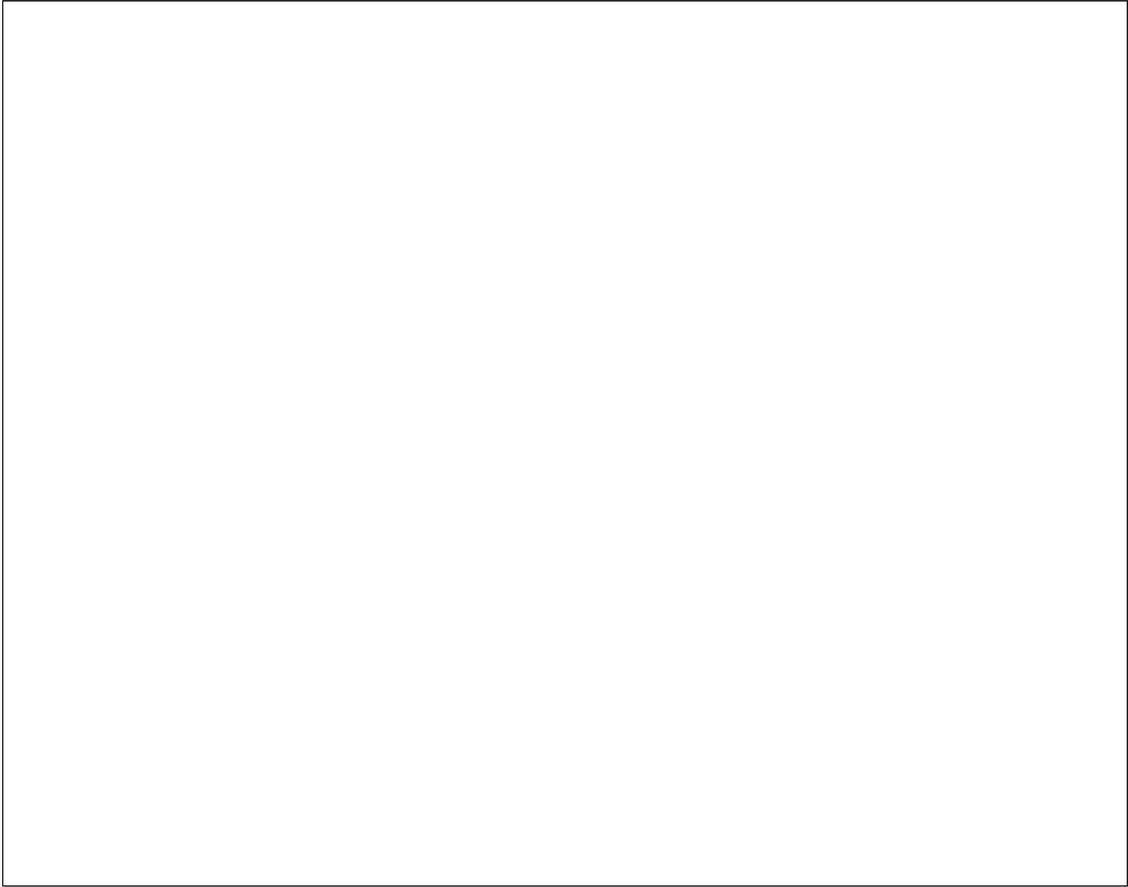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유심칩과 데이터카드를 사용하는데 잘 안터져서 애먹었습니다. 밖에서 연락할 때만 빠고는 사용할 때가 전혀 없고 숙소에서는 와이파이 터져서 저는 데이터카드를 한 번만 사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찾거나 갈 때,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정반대방향으로 갔고 길 잃을뻔 했거든요. 다행이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찾았지만... 수업이나 다른 활동 시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 대화하려 노력하고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대화할 거리가 없으면 '오늘 저녁 나가서 먹을 건데 좋은 데 추천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영어가 더 느는 길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도 빠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건 사진이고 추억입니다. 수업에 너무 열중하는 것보다는 대화가 많았더라면 하는 약간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솔직하고 이유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돌아와서 토익이랑 토익스피킹을 한 번 응시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초반에 본 레벨테스트보다 파이널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서 제 나름대로 뿌듯했습니다. 갔다와서 이제 영어 끝이다 하는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는 계속 말을 해야 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빅 투어



요트투어



트리탑 어드벤처



바비큐 파티



마닐라 투어



안바야코브 리조트